

<장학기금 소개>

◦ 동곡 이용희 장학기금

태광사 이용희 회장이 2008년 서울대학교와 아무런 연고 없이 1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하여 장학기금을 설립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맨손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태광사를 설립하였던 이용희 회장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더라면 더 성장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고자 장학금을 출연하였다.

◦ 동원 장학기금

2013년 정보화학 윤대섭 회장의 출연으로 마련된 200여원의 장학기금으로 매년 농업생명과학대학 100여명의 학생에게 지급된다.

◦ 정고 장학금

유태용 동문께서(토목공학과 1950년 입학)께서 출연한 기금으로 정읍 지역 출신 장학생과 공과대학 학부생에게 지급된다.

◦ 민계식 외국인 장학기금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낸 민계식 선생(조선해양공학과 1965년 졸업)이 2008년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이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계식 선생은 해당 장학기금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잘 활용되기를 당부했다.

◦ 김평기 장학기금

故김평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가족이신 김명희·신정희 후원자님이 출연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학문 발전 및 후학 양성을 위해 쓰여진다.

◦ 동진췌미켄 장학기금

동진췌미켄 이부섭 회장(화학공학과 1960년 졸업)의 출연으로 마련되었으며, 매학기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 윤전수 이삼락 장학기금

故윤전수, 이삼락 부부의 출연으로 마련된 장학금으로 매학기 학생 10여명에게 지급된다. 故윤전수 선생은 해방직후의 낙후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보태고자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을 쾌척하여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지금까지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구재서 장학기금

1950년대 중반, 혈혈단신 서울로 상경하여 극장사업에 투신, 1990년대 초까지 왕십리 소재 ‘광무극장’을 소유한 故구재서 선생이 2008년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이다. “신문에 기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꼼꼼히 챙겨보면서 더 늦기 전에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다.”라며 맨손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부한 故구재서 선생은 구입한지 20년이 넘는 TV와 라디오를 계속 사용할 정도로 평소 근검절약을 실천하셨다. 2013년 지병으로 별세하셨다.

○오영일(吳榮一)·오봉호(吳奉鎬) 희망 장학금

2012년 형제이신 오용호 변호사(행정학과 1973년 졸업), 오양호 변호사(법대 1984년 졸업)이 출연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기금이다. 故 오영일(부), 故오봉호(弟, 의학과 동문)님을 기리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였다. 장학금 확대를 위해 매년 추가로 기부하고 있다.

○백형익·유근순 희망 장학금

국회 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故백형익 선생과 배우자 유근순 선생이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이다. 평소 자연과학 분야의 인재육성에 관심이 많으시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자연과학대학 재학생과 경제학부, 경영학과, 생활대 소비자학과에 지급된다.

○조봉 장학기금

경보전기(주) 부회장이었던 故정재준 선생이 1996년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이다. 일제시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했어야 했던 아쉬움을 항상 마음 속에 담아오던 정재준 선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생을 마칠 때까지 장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 **육지수 · 이광희 희망 장학기금**

2010년 이광희 동문(지리학과 1963년 졸업)이 스승이신 故육지수 교수를 기리기 위해 출연하여 만들어진 기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기금 출연을 하고 있으며, 지리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 **신희명 이순원 장학기금**

故신희명 명예교수, 이순원 명예교수 부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물리교육과, 의류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한국에 최초로 피복체형학을 도입한 의류학과 이순원 명예교수(가정교육과 1958년 졸업)가 한국 의류학의 발전을 염원하며 기금을 출연하였다.

○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기금**

故임근수 교수의 아들로 평생 학자의 길을 걸어온 故임길진(건축학과 1969년 졸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기리기 위한 가족들의 기부로 마련되었다. 이 장학기금은 환경대학원과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 **용풍(龍馮) 장학기금**

故용환운 후원자와 배우자 풍원자 여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지급된다.

○ **이병호 교수 장학기금**

이재승 미국 미시간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핵공학과)가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으로, 원자핵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제1회 입학생이었던 이재승 교수가 재학시절 은사인 이병호 교수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병호 교수의 딸인 이민정 씨가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생에게 기금의 소중한 뜻을 전하고 있다.

○ **권옥현 희망 장학기금**

권옥현 공과대학 명예교수의 출연으로 2014년 마련된 기금으로, 전기공학부 학생과 공과대학 학생에게 지급된다.

○박숙희 미래비전 장학기금

2013년 지리학과 박숙희 동문의 출연으로 마련된 장학기금으로 매년 지리학과 학생에게 지급된다.

○채호석 장학금

故채호석 협진정밀공업 회장의 배우자 김양식 한인문화연구원장의 출연으로 마련된 장학기금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기공학부 학생에게 지급된다.

○김인하 장학기금

김영수 동문이 2003년 9월 유명을 달리한 2대 독자 故김인하(지구환경과학부 대학원 천문학 전공) 동문을 기리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출연하여 마련된 것이며 매학기 지구환경과학부 대학원 천문학 전공자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박종근 장학기금

2011년 박종근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출연으로 마련되었으며 매년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에게 지급된다.

○간호대학 교수 장학기금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간호대학 교수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후원한 장학금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점차 기금이 확대되고 있다.

○송재홍 장학기금

송재홍 현동장학회 이사장(농화학과 1988년 졸업)이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이다. 송재홍 이사장은 2005년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화학 전공 학생들을 지원해 왔고, 2008년에는 더 많은 인재를 후원하기 위해 현동장학회를 설립하였다. 해당 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한나(Hannah) 장학기금

한옥희(화학과 1983년 졸업)님이 2008년 출연하여 설립된 장학기금이다. ‘한나’는 한옥희님의 세례명이다. 기독교에서 ‘한나’는

아들인 ‘사무엘’ 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교육한 인물이다. 본인의 세례명을 장학기금에 부여한 것과 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되었으며, 졸업을 앞둔 4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오상하 장학기금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오선희 선생께서 출연한 기금으로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미주에서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유효선 장학기금

유효선 명예교수께서 출연한 기금으로 의류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윤계섭·최혜영 장학금

윤계섭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영대학 학생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기춘 장학기금

이기춘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가 출연하여 마련된 장학기금으로 소비자학과 학생에게 지급된다.

○한운 스코필드 장학기금

수의과대학 이문한 명예교수(수의학과)가 출연한 장학기금으로, 자신의 호 ‘한운’ 과 3.1독립운동 민족대표였던 ‘스코필드’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이윤경 장학금

충무병원 원장인 이윤경 동문께서 출연한 기금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된다.